

“경찰 편견 깼다” 종영 ‘도시경찰’ 이 보여준 진솔함



‘도시경찰’ 조재윤, 장혁, 김민재, 이태환이 진솔한 모습으로 경찰의 편견을 깼다. 18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도시경찰’에서 조재윤, 장혁, 김민재, 이태환은 마지막 출근길에 올랐다. 출근길 장혁은 “시원섭섭하다”는 속마음을 털어냈다. 김민재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네 사람이 출근하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장애인 허위 등록 사건

피의자인 홍금식(가명)이었다. 용산서에 지진 출석한 홍금식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지능팀 앞까지 큰 무리 없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최우철 수사관은 진솔하게 부패를 고지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홍금식은 거짓 진술로 일관했다. ‘도시경찰’은 이후 상황도 전했다. 홍금식 동생 홍동식(가명)은 2차례 출석 불응 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형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태환은 집회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지능팀의 업무는 해당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검거된 집회 참가자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장혁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좋지 않은 시위로 변질

조재윤·장혁·김민재·이태환 퇴소식 가져

될 것을 예방해야 하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바쁘더라”고 말했다. 조재윤, 장혁, 김민재, 이태환이 집회 현장에서 만난 경찰들은 체중, 안전관리 등 모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조재윤은 이태환 팀장에게 “의견 친구들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일들이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잘 몰랐다”고 말했다. 용산서로 돌아온 네 사람은 지능팀과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간의 소회를 털어놓으며 지능팀과 작별을 준비했다. 퇴소식도 있었다. 네 사람은 정복으로 같이 입은 뒤 강당으로 향했고 퇴소식을 맞았다. 김호승 용산경찰서장은 네 사람에게 수고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태환 팀장의 소감도 들을 수 있었다. 이태환 팀장은 네 사람에게 “짧은 기간 동안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수사 형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수사관으로 생활했던 경찰의 실상을 나기사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 느꼈던 모든 것들을 여러 시

민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고생하셨다”고 밝혔다. 이태환은 “이제 조금은 이렇게 하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떠나서 아쉽다. 무엇보다 저희 지능범죄 수사팀 그리고 이태환 팀장님 함께 팀이 뒤편 사건을 할 수 있어 굉장히 영광이었다. 늘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경찰 파이팅”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민재는 “사건을 만나고 피해자, 피의자를 만나면서 점점 더 그들의 상황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조재윤은 함께 동고동락한 수사관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진심을 전했다. 조재윤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집근근을 하거나 사무실에 지쳐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인간으로서,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보이기 시작하더라. 밤의 화려한 불빛을 지키기 위해 이분들은 밤을 새우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혁은 “경찰이라는 제복에 거리

감이 있었다. 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나중에 마음을 보게 됐다. 경찰 경험을 통해 배우로서 제 현장에서 왜 버텨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열정을 가지고 버티고 나가시라. 믿고 편안하게 나가겠다.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네 사람과 함께한 수사관들의 소감도 있었다. 이후 수사관은 “방송에 나왔을 때 재밌을까, 팔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밝혔고, 조경준 수사관은 “제가 처음 일해 봤을 때의 걱정을 그들도 했을거 아닌가. 나도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고 되짚어볼 때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철 수사관은 “장난스러운 분위기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처음에 와서 표정 보고 마음 바꿨다”고, 유승철 수사관은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단순히 체험하는게 아니라 같이 임한다는 자제가 보였다. 그래서 저도 같이하려고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유신 수사관은 “같이 열심히 하고 따라주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정이 안 들 수가 없다”고 따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세월호 영화, 이선균·설경구·전도연 만나 큰 세상으로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이다. 전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 깊게 남은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상업영화 두 편이 찾아온다. 그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그린 작품은 결코 적지 않았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별이 가도’(감독 장준열, 진정하, 전진환)는 유족들의 남겨진 아픔을 담담하게 그렸고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감독 김지영)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를 내세웠다. 특히 정우성이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오월 감독의 ‘눈개굴이나 참사 이후 유가족의 투쟁 1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 나라’(책임연출 김진열)도 있었다. 그러나 저예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라는 특성 상 흥보가 적은 무하다시피해 영화가 개봉한 줄도 모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나마 ‘그날, 바다’만이 김여준 제작, 정우성 내레이션 제는 기부하는 화제성에 힘입어 누적 관객 수 54만 명을 기록했다. 앞서 언급한 영화들 중 가장 많은 관객 수다.



아무리 큰 의미를 담았다 하더라도 보주는 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이에, 참사 5주기를 맞아 상업영화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영화 ‘악질경찰’(감독 이정범)과 ‘생일’(감독 이종언)이다. 20일 개봉하는 영화 ‘악질경찰’은 상업 액션영화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어른들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사태를 꼬집고 있다. 뒷문 쟁기는 비리 경찰 필요(이선균 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친구를 잃고 방황하는 고교생 미나(전소니 분)를 만나 변해가는데, 특히 미나를 해하려는 자신보다 더 나쁜 놈 대주(박해준 분)와 맞서면서 각성한다. ‘생일’에서 아이를 잃은 아버지 역을 맡은 설경구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 시인은 시를 쓰고, 소설가는 소설을 쓰고,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었다. 저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니 영화에 출연했다”며 “지 금까지 왜 이런 영화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키템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조절해 참여했다”고 말하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연상시킬 만큼 현실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담았다. 두 작품은 각각 워너브러더스코리아, NEW 등 대형 투자 배급사를 끼고 개봉하는 상업영화인데다가, 주연 역시 관객 동원력을 가진 흥행 배우들이다. 최소한 ‘물하지는’ 앓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세월호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기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악질경찰’의 경우 액션 영화로도 풀 수 있는 소재에 세월호를 덧씌웠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악질경찰’을 연출한 이정범 감독은 어떤 변명보다 세월호 유가족의 실제 반응을 전했다.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비난보다 참사가 잊히는 게 더 두려운다는 이정범 감독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 후, 한 아이 아버님이 제게 문자를 주셨다. 저 때문에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신 건 아닌지, 또 청소년 관람불가 상업영화라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본인들이 겪은 일은 훨씬 더 강력적이고 아찔적이었고 말습혀주셨다. 용기를 주는 문자였다”고 말했다. ‘생일’에서 아이를 잃은 아버지 역을 맡은 설경구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 시인은 시를 쓰고, 소설가는 소설을 쓰고,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었다. 저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니 영화에 출연했다”며 “지 금까지 왜 이런 영화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키템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조절해 참여했다”고 말하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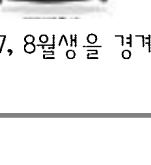
백예린, 음원 올킬 가능케 한 27개월의 숨은 ‘열일’



가수 백예린이 커버곡과 자작곡에 대한 반응을 음원 파워로 발전시켰다. 백예린은 18일 오후 두 번째 미니앨범 ‘하워 러브 이즈 그레이트(Our love is great)’를 발표하고 19일 오전 타이틀곡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로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퍼펙트 올킬’을 기록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하워 러브 이즈 그레이트’를 비롯해 자작곡 수록곡 들 또한 상위권에 올라 있어 2년 3개월의 공백이 무색한 음원 파워를 입증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백예린은 음원 발매를 쉬어갔지만, 그 목소리만큼 많은 이들에게 들려졌다. 백예린은 음원 대신 더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짙게 칠해 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건 시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커버곡과 자작곡 각종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무대 직캠이다. 백예린의 음색과 분위기가 가장 잘 드러난 콘텐츠이기도 했다. 시운드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백

예린은 바이 바이 베드 맨, 라라 라라 러브 송, ‘산책’, ‘그럴 때마다’, ‘가끔’ 등을 커버한 음성을 공개했다. 그 중 ‘라라 러브 송’의 경우 조회수가 219만, 하트 수가 4만 7천을 돌파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같은 선곡은 물론 백예린 자신의 해석을 더한 보컬이 리스너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감수성을 선사했다. 본인이 울리지 않은 직캠 영상의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2017년 ‘해브 어 니이스 데이’ 페스티벌 당시 ‘스퀘어 무대는 일명 ‘초록 원피스’ 영상으로 불리며 유튜브 조회수 298만 뷰를 돌파했다. ‘스퀘어’로 백예린은 지난해 썬데이 페스티벌에서 ‘하늘색 원피스’ 영상을 탄생 시키기도 했다. 적절한 비유이 백예린의 매력과 섞여 특유의 분위기를 낸 것. 그래서 이번 앨범의 발매 뿐만 아니라 구성에 대한 기대감도 뜨거웠다. 시운드 클라우드에 선공개했던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은 2개의 버전으로 수록됐고, ‘스퀘어’에 대해서는 백예린이 직접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버전이 더 좋을 수 없는 노래인 것 같아 앨범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며 설명하고 팬들의 이해를 구했다. 덕분에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의 전곡이 음원 차트를 점령, 특히 ‘하워 러브 이즈 그레이트’는 2위,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은 3위, ‘스퀘어’를 각각 4위, 5위, 6위를 각각 기록하며 ‘플레쉬’까지 완성했다. 백예린은 이에 “이렇게 사랑받고 기대 받고 기다려주는 분들 덕에 이것저것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음원 파워는 연속성이 예고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백예린은 ‘하워 러브 이즈 그레이트’ 티저 사진이 공개된 지난 11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다시 마음을 먹기까지 많은 시간과 조언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극히 일부이고 보여주고 싶은 다른 것들도 참 많다”고 전했다. 백예린과 함께 이번 앨범 작업에 참여한 프로듀서 구름 또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린이는 작업량이 상당히 많은 아티스트다. 이 앨범의 최고의 순간이 지금일까 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열일을 암시했다. 이번 3개월 동안 백예린은 자신의 음악과 색깔에 대한 리스너들의 신뢰를 쌓았고, 이는 음원 파워의 이유로 이어졌다. 백예린의 특별한 감수성과 열일이 기대된다.

오늘의 순세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음력 2월 14일)

 <p>▶쥐 재주도 많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믿고 나아가라. 인생은 곡예사가 줄 타는 것처럼 어려울 때와 즐거울 때가 있는 법. 힘들다 속단하지 말고 전진하라.</p>	 <p>▶원숭이 꽃병에 물을 갈아주는 마음씨는 자신의 사업에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다 하겠다. 구상력이 뛰어난 그대, 실력을 발휘하라. 3, 8, 12월생 금전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 애정을 멀리하면 후일 후회할 일 생길 듯.</p>	 <p>▶양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 1, 5, 11월생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라. 4, 7, 9월생에게 최선을 다하라. 7, 11, 12월 생 성격은 훌훌 털고 이 되도록 하고 마음을 정리해 잊는 얼굴로 매사 임함이 좋을 듯.</p>
 <p>▶사슴 길으론 진실한 것처럼 대해도 속은 이기적인 당심임을 알라. 그런 성격을 버려야 자신도 진실한 사람이 만날 수 있다. 3, 7, 11월생은 자신이 만든 복잡한 애정 관계를 청산해야 사업도 대성할 수 있을 듯.</p>	 <p>▶뱀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 것. 타이에게 베풀라. 하나 주면 셋, 넷을 얻는다. 어릴 때부터 사귀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믿는 것도 한도가 있음을 알 때. 3, 7, 11월생 모든 것을 너무 내보이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아라.</p>	 <p>▶말 7, 9, 12월생 동업을 하게 되면 돈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 힘들어도 혼자서 적은 일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3, 7, 11월 생 성격 착한 마음의 덕을 쌓아 왔으나 가족친지에 게 화가 미쳐 내 할 일 성취하기 힘들겠다.</p>
 <p>▶황소 간단한 일들이 목전에 있을 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함이 좋겠다. 저지른 잘못이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전진함이 좋겠다. 7, 9, 12월 생 성격 자녀에게 좋은 소식 있을 듯.</p>	 <p>▶말 3, 6, 8월생 수확의 성배는 씨를 뿌리는 노력 여하에 달렸듯 더 많은 내면 수양이 필요할 듯. 7, 9, 12월 생 성격 현재의 일을 마무리도 짓기 전에 또 다른 일을 벌여 놓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p>	 <p>▶양 4, 6, 7월생 동업을 하게 되면 돈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 힘들어도 혼자서 적은 일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3, 7, 11월 생 성격 착한 마음의 덕을 쌓아 왔으나 가족친지에 게 화가 미쳐 내 할 일 성취하기 힘들겠다.</p>
 <p>▶토끼 분수를 지키고 오만하지 말라. 열심히 인내하며 씨를 뿌리면 곧 결실을 본다. 친지와 우애를 돈독하게 함이 가정을 화목으로 이끄는 길이다. 사랑도 꽃피우는 결과를 가져올 듯. 7, 9, 12월 생 성격 명에가 중요함을 알라.</p>	 <p>▶뱀 7, 9, 12월 생 성격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라. 2, 8, 10월생 부부 이상 간 애정관리 철저히 해야 할 듯. 사업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래방에 가는 것도 좋겠다. 향인 욕심을 목청으로 달라고 마음도 정화해볼 것.</p>	 <p>▶말 7, 9, 12월 생 성격 넓은 길을 놓아두고 다른 길을 걸어 위험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건강에 해가 올 듯. 5, 6, 8월생 서로 마음이 각자간이나 후백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 사랑의 마음 그 문을 열어라. 파란색이 도움 주겠다. 2, 7, 8월생을 경계할 것.</p>